

새학기,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물었다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3월 2일 개강 후, 한국체대 캠퍼스에서는 입학식에 떨려하는 신입생의 모습, 오랜만에 온 학교에 어색함을 느끼는 복학생의 모습, 동기, 선후배끼리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등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학기 분위기 가득한 캠퍼스에서 한국체대 방송국(KNSB)과 함께 한국체대 학우들과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학우들의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통해 이 글을 읽을 한국체대 구성원들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박소영 기자 202220024@m365.knsu.ac.kr

올해도 달려 보겠습니다!



권나현 학우 (경기지도 롤러 22)

롤러를 타고 있는 권나현 학우이다.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우선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7회 아세안 인라인 프리스타일 챔피언십(7th ASEAN Inline Freestyle Championship)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전해서 순위권 안에 들어서 한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컴활 자격증 1급을 필기할 실기 둘 다 올해 안에 합격하고 싶고, 토익 점수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영어 실력을 많이

이 높이고 싶습니다.

Q. 대회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A. 매우 자신 있게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대표해 열심히 임하고 올 계획입니다.

Q.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몇 점까지 올리

고 받으시나요?

A. 사실 제가 토익을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720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점수 향상을 위해 지난 2월에 매일 토익 학원을 다녔어요. 900점 이상이 목표입니다.

Q.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A. 예전부터 이루고 싶었던 거는 우선 혼자 해외여행을 가보는 게 제 목표였어요. 제가 번지 점프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해외에 가서도 액티비티를 즐겨보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꼭 해외여행 중 액티비티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Q. 그런 액티비티한 것들을 즐길 만한 해외 여행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A.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곳 중에 뉴질랜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많은 사람이 뉴질랜드 하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떠올리는데, 그런 환경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우 여러분도 뉴질랜드에 가신다면 즐거운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민·손민찬 학우 (체육 투척부 22)

친구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김현민, 손민찬 학우이다(왼쪽에서 2, 3번째)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김: 올해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첫 대회인 제77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를 준비 중인데, 다치지 않고 잘하고 오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저는 부상이 있어서 올해 휴학하는데, 먼저 재활에 전념해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복학하고 싶습니다. 복학 후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Q.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A. 김: 번지점프 하기. 어디에서든 상관 없으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손: 버킷리스트는 많이 정해둔 게 없지만, 굳이 고르면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 탐방을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종로 쪽으로 같이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이제 4학년이라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야 하고, 바디프로필도 찍을 예정입니다.

Q.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 쪽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로필은 누군가에게 운동이나 다이어트 조언을 해줄 때 좀 더 쉽게 하기 제가 직접 다이어트를 하며 경험을 늘리고 싶어서 버킷리스트로 짜봤습니다.

Q.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A.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철인3종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조성한 학우(사회체육 18)

작년 철인3종 대회에서 수상한 조성한 학우이다.

했었는데, 작년에 릴레이 사이클 주자로 나갔습니다. 그때 철인3종의 멋진 모습에 반해서 올해도 대구 철인3종 대회를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잘 준비해서 완주하는 게 버킷리스트고,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서진 학우 (운동건강관리 20)

자격증 취득, 진로 설정을 위해 김서진 학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이제 4학년이라 졸업을 앞두고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제 버킷리스트는 무조건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Q.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로는 어떤 건가요?

A. 원래 아예 전공을 안 살리려고 했었는데, 올해 운동 하나를 마지막으로 배워보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공을 살려 보려고 합니다. 운동건강관리학과라 트레이너 쪽으로 나가는 선배님들도 많아서요.

Q. 배우고자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A. 며칠 전부터 학교 선배님께 3대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파워리프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Q.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A. 해외여행 가기입니다. 어렸을 때 중국이랑 미국을 다녀온 후로 그 외에는 잘 못 가봤어요. 스물 후반 되기 전에 제가 직접 돈을 모아서 가고 싶습니다.

대학생으로서의 첫 시작



홍기연 학우 (운동건강관리 23)

동계학과 학교 로고가 인쇄된 포토 월에서 사진을 찍은 홍기연 학우다(왼쪽에서 1번째)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한국체대에 입학할 때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번 1학기 때 수영 수업이 있어 수강하면서 잘하게 되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Q. 버킷리스트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수영을 원래 해보고는 싶었는데, 해볼 기회도 없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수업이 있어서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윤서영 학우 (스포츠산업 23)

윤서영 학우의 모습이다.

Q. 올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A. 가족들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큰 계획은 없고, 가서 하면 좋을 거나 사 올만한 것들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Q.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A. 혼자서 국내로 배낭여행을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작년까지는 미성년자여서 한 번도 못 갔다가 이제 성인이니 슬슬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Q. 왜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했나요?

A.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자립심도 키우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버킷리스트로 정했습니다.